

작품 내용

제 목	발자국
내 용	눈길 위에 새겨진 꺾적은 타인의 사유가 만든 길. 나는 그 굽이진 경유지를 조심스럽게 디더 보지만 타인의 문장을 훔내 낼 수는 있어도 그 문장이 태어나기까지의 숨결을 훔칠 수는 없다. 계절이 바뀌어 모든 흔적이 지워진 자리에도 처음 그 길을 내며 흘린 오롯한 고뇌의 시간만큼은 사라지지 않는 법이므로.